

아세안·중양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 관세청, 9개국과 정책 세미나

- 4월 1~2일, 9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 글로벌 통관 장벽 해소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지원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양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알파벳순)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양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문조사(2025.11월),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한-중양아시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2024.6월)

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 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홍익 (042-481-3215)

